

엇갈린 추석민심 평가...與 “개혁 시간”·국힘 “민심 격앙”

민주 “국민 명령 내란 청산·민생경제 회복” 국힘 “與개혁 거칠고 성급·경기 추락 체감”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9일 여야가 전한 ‘명절 민심’ 평가는 판이했다.

여당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민생경제에 힘써달라는 당부가 주를 이뤘다고 했고, 야당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등에 대한 여론의 불만이 거셌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 4개월에 대한 추석 민심 평가는 ‘앞으로의 4년을 더욱 기대하게 만든 대한민국 정상화의 시간’이었다”며 “민주당은 더 잘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집권 여당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완전한 내란 종식은 국민의 명령이자 특검의 출범 이유임에도 국민의힘은 뻔뻔하게 특검법 필리버스터 등 조작적으로 특검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내란 청산, 민생경제 회복을 흔들림 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호남을 지역구로 둔 박지원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지역구 주민들이) ‘이재명 대통령 잘한다’며 제일 높은 평가를 하면서도 ‘혹시



추석 민심 전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추석 연휴 취향 민심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이 다시 나오는 것 아닌가’라며 내란 청산에 대해 의구심이 많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시대정신과 국민적 요구는 내란 종식과 3대 개혁이다. 물 들어왔을 때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면서도 “속도 조절을 해 일부 민심도 잘 감안하라는 건설적인 충고도 있었다”고 했다.

수도권 초선 의원은 “확실히 윤석열 정권보다는 좋아졌다는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한다. 전통 시장에 가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가 크다는 얘기도 많이 한다”며 “정쟁하지 말고 민생도 신경 써달라고도 하겠다”고 소개했다.

다만 “개혁과 내란 종식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많지만 속도 조절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석 연휴 기간 청취한 민심이 이재명 정부의 사법개혁·경제 실정을 성토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지역에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분노가 차고 넘쳤다”며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면직과 체포,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검찰청 폐지 등 정부가 추진하는 소위 ‘개혁’이라는 것이 너무 거칠고 성급하다는 비판이 많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기자간담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추석 민심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경북(TK) 지역의 한 초선 의원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라는 엄청난 시기에 대통령이 예능 촬영을 하지 않나, 대법원장에게 사퇴하라고 압박하지 않나. 정부가 완전히 독재를 향해 달려가는 데 민심이 격앙돼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소비쿠폰 지급도 잠깐 돈 쓰게 했지만, 전 통시장 상인이나 소상공인들은 경기가 다시 추락한 게 체감된다고 하더라”며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오히려 경기가 더 안 좋아졌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고 강조했다. 좀처럼 지지율 상승의 계기를 만들지 못하는

당에 대한 고인도 있었다.

한 수도권 지역 초선 의원은 “아직 12·3 비상계엄 사태의 후유증이 계속되는 것 같다”며 “당의 지지율이 아직은 정부·여당의 실정에 따른 반사 이익에 기대어 할 상황인데, 적지 않은 국민이 ‘국민의힘에 신뢰를 주지엔 시기상조’라고 느끼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TK 지역의 한 의원은 “여론이 민주당으로부터 돌아서는 건 확실한데, 빠진 지지율이 우리 쪽으로 확안 넘어오는 상황 같다”며 “여당의 폭주에 잘 대응하고, 국민의힘이 대안을 잘 내면 좋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호남서 하락세...지방선거 대책 부심

성비위사태·존재감 ↓ 지지율 2-4% 간혀 총선과 달리 ‘지민비조’ 통하지 않을 듯

조국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들어선 조국혁신당이 당 핵심 기반인 호남에서의 하락세가 두드러지면서 지방선거 대책을 놓고 부심하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조 위원장의 특별사면 직후인 8월 셋째 주 4%를 기록한 뒤 2-4% 수준을

떨고 있다. 특히 호남에서 당 지지율은 8월 셋째 주까지 11%로 국민의힘(6%)을 2배 이상 앞섰으나 최근 조사에서는 3%로 국민의힘(4%)에도 1%p 밀렸다.

이는 갑작스럽게 불거진 당내 성비위 사태 여진이 지속되는 데다, 당의 주요 의제였던 검찰 개혁 등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면서 당의 존재감이 약화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지방선거는 당의 향후 진로를 가를 분수령으로 꼽힌다. 혁신당 측은 다음 달 전당대회 이후 새 지도

부가 구성되면 곧바로 지방선거 대응 체제로 돌입할 방침이다.

일단 혁신당은 전국 모든 기초의원 선거에 독자 후보를 내고 광역단체장 선거에선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독자 노선을 유지하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달라진 선거 구도다. 지난 총선에서는 이른바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전략이 통했지만,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마땅히 내세울 차별화 전략이 현재로서는 부재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미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압승을 공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민비조’ 전략을 용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혁신당에 대해 이른바 ‘형제정당’으로 응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것이다.

결국 성비위 사태의 조기 매듭과 함께 조 위원장의 민심 각개 격파를 통해 당 지지율을 반등시킬 계기를 찾아야 하는 과제가 혁신당 앞에 놓여있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8월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4명, 9월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진수기자

장애 전산시스템 1등급 40개 중 25개 복구 가동 중단 시스템 647개→709개 정정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정부 행정정보시스템이 기존 647개에서 709개로 늘어난 가운데 이 중 1등급 핵심 시스템은 40개로 집계됐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국정자원 통합운영관리시스템(엔탐스) 복구를 통해 전체 시스템 목록이 709개로 늘어났으며, 등급별로는 1등급 40개, 2등급 68개, 3등급 261개, 4등급 340개로 집계됐다.

정부 시스템은 업무 영향도, 사용자 수, 파급도 등을 고려해 등급이 매겨진다.

이 가운데 이날 낮 12시 기준 193개 시스템이 복구됐고, 1등급 핵심 시스템 40개 중 25개가 정상화됐다.

김민재 중대본 제1차장(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이같이 시스템 현황을 전하며 “최근 국정자원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인 엔탐스(nTOPS)의 데이터가 복구돼 대전센터(본원)의 전체 시스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었고, 부처와 확인 과정을 거쳐 목록을 확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박지원, 우상호 수석에 ‘따끔한 일침’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국회의원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 대해 ‘따끔한 일침’을 가했다. 박 의원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우상호 수석

의 ‘대통령실과 여당 사이에서 속도 차가 날 때 난감하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이견이 있으면 당정대 정책협의를 ‘빅5’(당대표·국무총리·대통령 비서실장) 간 혹은 원내대표와 정무수석을 포함한 ‘빅5’ 간 협의하시면 된다”고 지적



했다. 박 의원은 “이견이 노출되면 국민은 불안하고 청산과 개혁은 실패할 수도 있다”며 “당이 왜 이래” 하시면 안된다. 이런 말씀은 ‘빅5’ 간 카톡방에서나 하실 말씀”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우상호 정무수석은 지난 6일 한 라디오

에 출연해 “민주당의 입장이나 취지에 전부 동의하지만 가끔(대통령실과 여당 사이에) 속도나 온도에 차이가 난다”며 “이로 인한 고민을 할 때 제일 난감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개혁 압박 등 각종 개혁 작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여당의 입장을 물밑 조율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냐는 주장이 나왔다. /김진수기자

민간자격증 관리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파크골프 모든 것!

실내연습장 완비

지도자 자격증 취득

- 모집기간 : 수시모집(1:1교육)
- 교육접수 / **파크골프지도자 1,2급**
▶ 교재 배수 → 1차 이론 자가학습
→ 1차 시험 → 2차 실기 1:1교육(매주 2회 이상)
실내파크골프연습장
- 접수방법
농협 351-1286-9685-63(국제파크골프연합회)
- 교육비 및 응시료
교재비 + 골프장 실습비 + 강사료
2급 합격시까지 28만원
- 접수 : H.P. 010-9163-7897 Tel. 062-369-0070

파크골프교육 (초보,중급,고급)

- **실내실습장(파크골프 스크린장)**
1:1 책임지도(매주 2회 이상)
- **광주교육대학교 시민대학 강좌 개설**
- **매주 토요일 09:00-11:30**
- **매월1회 이상 파크골프 동호인 동행 전국구장투어**

파크골프지도자 1·2급과정 교육 희망자 모집

교육과정	28만원	실기실습장 이용권 33회	1:1지도 사전예약
2급 지도자 과정	자격취득 총비용	합격시까지	
1급 지도자 과정	36만원	실기실습장 이용권 33회	1:1지도 사전예약
초급완성반과정	12만원	실기실습장 이용권 15회	1:1지도/3회 사전예약
초급원포인트과정	6만원	실기실습장 이용권 6회	1:1지도/2회 사전예약

* 파크골프지도자 1·2급 합격시까지 그 외 비용 일체 없음
* 접수 즉시 이론교재 및 예상문제지 배수 실기실습/실내실습장 합격시까지 무료교육

교육시간 평일(토) 오전 09시~ 오후 19시까지(일)/휴무
접수문의 T. 062-369-0070 M. 010-9163-7897
접수비 입금계좌 국민은행 772601-01-794141

안내문의 : 010-9163-7897 / Tel. 062-369-007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9**
(화정새마을금고 4층), 농성역 4번 출구 방향